

장성군, 지방자치행정 경쟁력 우수성 입증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5위 국립심뇌혈관연구소유치 등 영향

장성군 지방자치 경쟁력이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자치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장성군은 10일 최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원이 조사·발표한 '2023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 자료에서 515.7점을 기록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종합 5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에선 1위에 해당하는 점수로 전국 군 단위 평균인 443.9점보다 70점 이상 높았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인구·제조업·일자리·소비력 등을 나타내는 정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 근간을 파악해 수치화한 종합 자료다.

경영자원·경영활동·경영성과로 구성되며 장성군은 경영활동 부문에서도 전국 4위, 전남 1위에 오르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확정과 카카오 데이터 센터 구축 가시화, 인구 유입 촉진, 신성장 동력 창출 노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6년간 도전에 확정된 장성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은 남면 장성나노산

단 1만9800㎡ 부지에 국비 1001억원을 투입해 건립된다.

2027년 착공해 2029년 완공 예정이며 의료와 치유관광을 접목한 치유경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구소 인근에 구축되는 4900억원 규모 장성 카카오 데이터 센터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설계와 설비 구축, 운영에 참여한다. 내년 7월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10월 착공할 계획이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통한 3814가구 규모 주거단지 조성은 진원·남면 일대에 9500명 규모 인구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 8기 들어 '음식'을 콘텐츠로 한 관광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교두보도 확보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씨제이(CJ)푸드빌과 잇따른 업무협약으로 장성 먹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일 기회를 잡아서다.

장성군은 민선 8기 공약인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해 음식과 관광을 연계한 '미식 관광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전국 최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 지역과 향우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장성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천 기자**

저소득층 아동 장학금 기부 대한한돈협회 보성지부



보성군은 지난 8일 대한한돈협회 보성지부 선회기 지부장이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에게 100만 원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금은 한돈자조금·대한한돈협회·(사)대한한돈협회 보성지부에서 마련했으며 사랑의 열매와 연계해 아동 10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보성지부는 매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양기람 기자**

화순군청 앞 동헌길 일부 구간 내년 1월1일부터 일방통행 지정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원활한 차량흐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순군청 앞 동헌길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방통행 지정 구간은 화순읍 진각로 137번지(세븐일레븐 편의점)부터 동헌길 25번지(쌍둥이 종합상사)까지 50m이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쌍둥이 종합상사 방향으로 차량 진입은 가능하나 쌍둥이 종합상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방향으로의 차량 진입은 금지된다.

지난 10월 전남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일방통행 지정(안)이 가결되어 10월16일부터 11월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2월에 일방통행 시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1월1일부터 일방통행 지정을 시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일방통행 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보성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지방교부세 감액제로 달성

보성군은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제로(ZERO)를 달성, 행안부로부터 내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보성군은 민선 7기에 이어 이번에도 감액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법령위반 경미지출, 수입 징수 태만, 예산 편성 부적정 등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액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한다

김철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감액은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며 "보성군의 재정운영 건전성과 책임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블루베리 전문농업경영인 배출 곡성명품농업대학

곡성군이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대청마당에서 이상철 군수와 졸업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곡성명품농업대학 졸업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2011년부터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지역특화작목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17개 과정 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26명의 농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블루베리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교육은 지난 2월28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총 21회 100시간으로 운영되었으며 심도 있는 이론 교육과 교육생 농장에서 생생한 재배 방법 실습 교육, 선진지 현장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곡성=김대영 기자



지난 8일 곡성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13기 명품농업대학 졸업식을 열었다.

곡성군 제공

우주산업 육성·발전 맞춘 고흥군-한국우주기술진흥협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8일 서울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우주산업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전남도, (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우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3자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지난해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고흥군의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및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우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

협약에 참여한 (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회장 손재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우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 93개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고흥군과 전남도는 이날 행사에 참가한 우주기업을 대상으로 고흥군의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공유했으며, 기업수요 확보를 위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며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산업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 선점"... 나주시, 연구센터 유치 도전

나주시가 오는 2032년 전 세계적으로 830억 달러(10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탄소중립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연구센터 유치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내에선 생소한 푸드 업사이클링은 상품성이 떨어진 식재료를 새로운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산업을 지칭한다.

주목받지 못하던 깨진 쌀과 콩비지를 주재료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과자를 만드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은 식품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연구가 시

급하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선정을 목표로 용역에 착수했다.

푸드 업사이클링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에 이어 올해 6월29일 수립한 '제4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가운데 푸드테크 10대 분야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스마트제조(AI·로봇)', '배양육', '푸드업사이클링', '대체식품' 등 푸드테크 10대 분야 중 3개 분야를 지정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용역사

로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센터 구축 기본계획과 육성전략 수립'에 나섰다.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은 "푸드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는 나주가 최적지인 만큼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나주시는 이번 용역 착수에 앞서 지난 9월 '탄소중립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민·관·학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동신대학교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나주시식품산업단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림식품기술기획기원을 비롯한 산·학·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순천시, 글로벌대학과 손잡고 미래산업 다진다

지역과 대학 및 산업체 간담회 지·산·학 연계... 문화콘텐츠 구상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8일 글로벌대학30으로 선정된 순천대와 만나 지역과 대학 및 산업체 간 협력을 다지기로 뜻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대학, 기업인 등이 참석했으며, 글로벌대학30 선정을 축하하고 운영 방향 등 공동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역 곳곳에서

글로벌대학30 선정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글로벌대학 선정을 기점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특화분야 강소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대학의 책무를 다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11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 'UCLA대학'을 다녀왔다. 정원박람회 이후 도시의 새로운 동력이 될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글로벌대학 사업과 연계해 순천형 문화

콘텐츠 생태계가 잘 구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가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는 지난달 13일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돼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확보했다.

지역·산업체와 연계해 3대 특화 분야인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학사 구조를 개편하는 등 대학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